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정 은 선[†]

조 한 익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인 성격 특성으로서 강인성이 매개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2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거된 253부 중에서 241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각 변인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으로 제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강인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돌봄이 높고 과보호가 낮을수록 강인성과 주관적 행복감은 높았고 우울감은 낮았다. 또한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인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함과 동시에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밝혔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부모 양육태도(돌봄과 과보호),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 본 연구는 정은선의 2008년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정은선, 건국대학교 학생복지처 종합상담센터, (143-701)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Tel : 02-450-3019, E-mail: esjung@konkuk.ac.kr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로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전적인 특성을 물려 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을 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며, 외부 세계에 대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안정감 있고, 건강한 정신내적 구조를 가진 채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이다(Bowlby, 1988).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지원을 많이 받은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성인기에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대인관계 기술을 잘 획득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획득하는 개인의 효과성과 능력이 높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6).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수혜자가 상대적인 의존성과 부채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이나 무능력함을 암시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Bolger, & Amarel, 2007; Bolger, Zuckerman, & Kessler, 2000; Dormann, & Zapf, 1999; Peeters, Buunk & Schaufeli, 1995). 가족의 도움조차도 과도하게 제공되면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배우자의 지원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수혜자(상대 배우자)의 독립심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에 해롭다(Martire, Stephens, Druley & Wojno, 2002; Olson, Sprenkle, & Russell, 1979)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돌봄으로 지각한다면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안녕을 느낄 것이나, 지원이 지

나쳐 통제와 간섭 같은 과보호로 지각한다면 독립성을 해치거나 의존성을 증가시켜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Parker, Tupling과 Brown등(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돌봄은 따뜻함, 수용,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고, 과보호는 통제하거나, 제약하고,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과 돌봄은 자녀로 하여금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나(박은미, 1999), 돌봄 부족과 과보호는 임상적인 정신질환이나 우울감(오옥진, 1999; 이은희, 1999; Overbeek, Have, Vollebergh, & Graaf, 2007)과 관련 있었다. 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 과도한 보호와 통제의 형태로 지각한다면 오히려 나약하고 의존적인 면을 기르고,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을 야기하며(Hudson & Rapee, 2001; Mills & Rubin, 1998; Rapee, 1997), 독립적인 기능 수준을 해치는 등(Clay, 1997; Holmbeck, Johnson, Wills, McKernon, Rose, Erkin, & Kemper, 2002; Thomasgard & Metz, 1993)의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Overbeek 등(2007)은 4,796명에 이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유병률 및 발병율과 관련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지각된 부모의 돌봄 부족과 과보호가 정신질환의 시작시기에 대한 예언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돌봄 부족은 공황장애, 광장공포, 알코올 남용과 관련 있고, 아버지의 돌봄 부족은 주요 우울증, 기분부전장애, 사회공포증, 약물남용, 알코올 의존과 관련 있었다. 또한

Enns, Cox와 Clara(2002)는 국립질병조사(National Comorbidity Survey: NCS)에 참여한 5,877명의 피험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모의 돌봄 부족과 과보호는 다양한 DSM-III-R 장애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독립적인 기능 수준을 해치며, 우울과 반항적인 행동 비율을 높이고 외현화 된 행동문제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Anderson & Coyne, 1991; 1993; Clay, 1997; Parker, 1983; Sargent, 1983; Thomasgard & Metz, 1993). Taylor와 Alden(2006)도 일반인 집단과 일반화된 사회공포증(GSP) 집단의 종단적인 비교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는 아동의 독립성 발달을 제한하고 아이가 사회적 환경에 덜 반응하게 함으로써 추후 사회적 상호작용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이끌어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줄이고 자녀가 부모 행동을 지각하는데도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Thomasgard(1998)는 22개월에서 72개월 된 유아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장기간 동안 과보호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공포 불안, 정신증, 편집증적 사고의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Martin과 Waite(1994)도 부모의 태도를 애정이 없고 과보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에게서 자살사고와 우울의 위험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며, 청소년기의 정신사회적 장애에 대한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선의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지라도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된다면 실제적인 도움과는 별개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Holmbeck et al., 2002).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과보호하지 않으면서, 돌봄이 잘 되었던 집단보다 어머니가 과보호하면서 잘 돌보지 않았던 집단이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또한 과보호보다 돌봄의 부족이 그 자녀의 정신 병리와 우울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다(이현만, 한성희, 1996;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최선남, 최외선, 1995). 부모의 돌봄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갖게 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 또한 높았으며, 현재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아개념이 높고, 타인 애착 간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의 친밀감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반면 과보호가 높을수록 우울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오옥진, 1999; 윤소연, 1993; 정승환, 1998). 최근 중국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보호 속에 성장한 외동아이(소황제)들이 성인이 된 후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인터넷 뉴시스, 2007. 9. 15일자 기사; 인터넷 조선, 2003. 8. 15일자 기사)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한편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형성이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단선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성인의 경우는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만을

단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부모 양육태도로 형성된 개인의 특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린 자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측면이 크다면, 현재 개인의 특성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격 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의 심리적 불편에 초점화 되어 있어 내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견한다면 전문적 조력 과정에서 개인을 이해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들이 보고되었다. Holmbeck 등(2002)은 척추피열(spina bifida)을 앓고 있는 집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각된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적 자율성(behavioral autonomy)이 매개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완벽주의, 역기능적 태도와 자존감, 부모자녀 관계지향성(오욱진, 1999; 이은희, 1999; 정승환, 1998)

등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돌봄과 과보호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화 가능한 특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변화를 위해 개입 가능한 통로를 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울등과 관련하여 주로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룬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긍정적인 자원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강인성(Hardiness)은 Kobasa(1979)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결과에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는 내적 자원을 말한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자신해서 몰입(commitment)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경험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쳐 통제(control)할 수 있다는 신념과 변화를 하나의 도전(challenge)으로 받아들여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유가효와 박선주(2004)는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와 일관성 있는 규제는 아들의 강인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딸의 강인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김후영(2006)은 강인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강인성이 높은 집단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많이 경험했지만 강인성이 낮은 집단은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간헐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가족 내 스트레스와 강인성이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강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인성이 높은 집단이 사랑, 신뢰, 관심, 이해 등이 포함된 정서적 지지와 인격 존중, 칭찬, 의사존중 등을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점에서 부모로부터 애정과 존중,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을 받는 것이 강인성 발달과 매우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인성이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모 자녀 관계가 강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인성은 주로 스트레스 장면에서 신체적 질병 및 건강,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Kobasa, 1979; Kobasa, Maddi & Courington, 1981; Kobasa, Maddi & Kahn, 1982). 그 결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 적응 등과 정적으로 상관성이 있었고(Hull, Van Treuren & Virnelli, 1987; Kobasa, 1979; Kobasa et al., 1981; Maddi & Kobasa, 1984), 불안 및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llred & Smith, 1989; Drory & Florian, 1991). 또한, 강인성은 실제 스트레스 상황인 기초 군사훈련에 적응하는 군(軍)장면이나 전쟁을 겪은 후와 같이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정은선, 2007; Florian, Mikulincer, & Taubman, 1995; Mayselless & Hai, 1998; Mikulincer & Florian, 1995;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김영옥(2005)은 국내 강인성 효과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강인성의 연구를 건강 관련, 심리적 안녕감, 적응, 스트레스, 지지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 심리적 안녕감 범주가 강인성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변수

군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강인성도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개인차 변인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강인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격변인으로서 강인성은 부모 양육태도의 결과인 동시에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정신건강 등 각각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관점을 확대하여 각 변인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의 개입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로 구분한 Veit와 Weir(1983)의 견해를 따라, 긍정적 정서 상태로서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불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울(depression)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없다고 해서 안녕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우울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가 수반되어야 정신건강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주관적 행복감)과 부정적 측면(우울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을 긍정적인 내적 자원으로
서 강인성이 매개함을 밝히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을 돌봄으로 지각하는지, 과도한 보호로
서 지각하는지와 같이 단순히 지각된 부모의
양육에 의해 단선적으로 주관적 행복감 및 우
울감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
적 차이가 정신건강에 달리 영향을 미치게 되
는 중요한 과정적 변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
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
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
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인성이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3부가 회수되
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2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241명
(남자 111명, 여자 13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범위는 19~29
세였고, 이 중 95.1%가 20~27세에 해당하였
으며 전체 연령평균은 23.2세($SD=2.26$)였다. 설
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
감 및 우울감 척도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
사였으며 검사소요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연구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부모의 양육태도는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PBI(Parker et al., 1979)를 송지영(1992)이 변
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태도를 회상적으로 보
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돌봄(care)과 과보호
(overprotection)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은 총 12개 문항, 과보호는 총 13개 문항이며,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
각 .85, .84였다.

강인성 척도(The Hardiness Scale)

강인성은 Bartone, Ursano, Wright와 Ingram
(1989)이 제작한 척도를 조현영(1999)이 변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격적 강인성
을 측정하는 것으로 몰입(commitment), 통제
(control), 도전(challenge)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4점 척도이며 하위 요인 별로 각 15
문항씩 총 4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5였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

주관적 행복감은 Lawton(1975)이 개발한
P.G.C. 사기 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김영우(1998)가 변안하여 노인
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수정판 척도를 이지연
(2005)이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것으로 측정
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12
개, 총 17개 문항이며 이분법적 응답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2로 나타났다.

결 과

우울감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감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긍정문항 4개, 부정문항 16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보고 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 간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 강인성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예언도와 하위 요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강인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의 관계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감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6, p<.001$; $r=-.16, p<.05$). 부모 과보호는 주관적 행복감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우울감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18, p<.01$; $r=.13, n.s.$). 이는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우울감은 적게 느끼는 한편, 부모가 과보호하였다고 지각할수록 행복감을 적게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강인성은 부모 돌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모 과보호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3, p<.001$; $r=-.31, p<.001$). 또한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우

표 1. 부모의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간의 상관계수(r)

변인	부모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돌봄	과보호			
1. 부모 양육태도	1) 돌봄	-			
	2) 과보호	-.46***	-		
2. 강인성		.33***	-.31***	-	
3. 주관적 행복감		.26***	-.18**	.51***	-
4. 우울감		-.16*	.13	-.50***	-.64***

* $p<.05$, ** $p<.01$, *** $p<.001$

울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51, p<.001; r=-.50, p<.001$). 이는 부모 돌봄이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강인성이 높고, 부모 과보호가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강인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강인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에서 제시된 단순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예언력의 정도가 어떠한지와 부모 양육태도 하위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동시적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 양육태도에 의해 변량의 7%가 설명되었다. 이때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 각각은 부모 돌봄만이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22, p<.01$). 즉,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과보호는 단순상관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07,$

$n.s.$). 이는 단순상관에서는 유의하더라도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모 돌봄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양이 없음을 나타낸다. 우울감은 부모 양육태도에 의해 변량의 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 돌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부모 과보호는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16, p<.05; \beta=.10, n.s.$). 즉,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모 돌봄과 과보호 중 부모 돌봄만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고유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에서 제시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의 설명력의 정도가 어떠한지와 부모 양육태도 하위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강인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동시적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강인성 변량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 각각의 Beta값은 부모 돌

표 2.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다회귀분석

변인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β	t	R^2	F	β	t	R^2	F
돌봄	.22	3.07**	.07	8.25***	-.16	-2.14*	.05	5.95**
과보호	-.07	-.90			.10	1.40		

* $p<.05$, ** $p<.01$, *** $p<.001$

표 3. 강인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다회귀분석

변인	강인성			
	β	<i>t</i>	R^2	<i>F</i>
돌봄	.24	3.42**	.15	20.31***
과보호	-.22	-3.09**		

* $p < .05$, ** $p < .01$, *** $p < .001$

봄과 부모 과보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였다. 즉,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는 독립적으로 강인성에 유의한 예언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 돌봄은 강인성을 정적 방향으로 부모 과보호는 부적 방향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강인성은 증가되고, 부모 과보호가 높을수록 강인성은 감소하는 결과이다.

강인성의 매개효과

다음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인성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절차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절차 2). 그리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단계 1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줄어들어야 한다(절차 3).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결론지

을 수 있다(Kenny, 2001).

앞서 부모 양육태도가 강인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표 3 참조),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므로(표 2 참조),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 양육태도와 강인성을 예언변인 군으로 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단계 1에서 부모 양육태도를 투입했을 때, 부모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 변량의 7%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 돌봄만이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23, p < .01$; $\beta = -.06, n.s.$). 다음에, 단계 2에서 강인성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주관적 행복감의 설명력(R^2)은 26%로서 전체 설명력이 19% 증가하였다. 강인성이 추가됨으로써 주관적 행복감 변량의 설명력이 1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beta = .48, p < .001$) 반면, 단계 1에서 유의하였던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 = .11, n.s.$). 이로써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이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강인성의 효과가 부모 양육태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인성이 투입되었을 때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강인성이

표 4.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와 강인성의 위계적 종다회귀분석

예언변인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β	t	R^2	ΔR^2	F 변화	β	t	R^2	ΔR^2	F 변화
단계 1			.07	.07	8.23***			.05	.05	6.00**
돌봄	.23	3.08**				-.17	-2.25*			
과보호	-.06	-.86				.10	1.29			
단계 2			.26	.19	57.05***			.22	.17	47.23***
돌봄	.11	1.64				-.04	-.63			
과보호	.04	.57				-.01	-.09			
강인성	.48	7.55***				-.45	-6.87***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울감의 경우, 단계 1에서 부모 양육태도를 투입했을 때, 부모 양육태도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감의 전체 설명력(R^2)은 5%였다. 우울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 돌봄만이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17, p < .05$; $\beta = .10, n.s.$). 다음에, 단계 2에서 강인성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감의 설명력(R^2)은 22%로서 전체 설명력이 17% 증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인성은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단계 1에서 유의하였던 부모 돌봄은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 = -.04, n.s.$). 이로써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이 결과는 우울감에 대한 강인성의 효과가 부모 양육태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인성이 투입되었을 때 부모 돌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강인성이 부모 돌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인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우울감과는 부적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과보호는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부모 과보호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춤으로써 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긍정적

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 과보호는 주관적 행복감을 낮춤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부모의 과보호가 적고 돌봄이 많은 것이 자녀의 행복감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과보호가 높고 돌봄이 낮았던 자녀의 정신건강이 해로웠던 점을 보고한 선행연구(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이현만, 한성희, 1996) 결과와 더불어 부모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서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예언력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 각각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는 부모 돌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조건에서는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효과 크기(effect size)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 돌봄에 의해서 설명되는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의 변량 7%와 5%는 작은 효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 돌봄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강인성은 부모 돌봄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부모 과보호와는 부적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반면, 부모 과보호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강인성이 높은 집단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많이 경험했지만 낮은 집단은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간헐적으로 부

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였고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강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김후영(200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우울감과 부적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강인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인성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예언력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부모 돌봄과 과보호가 강인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인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은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부모 돌봄과 과보호가 독립적으로 강인성에 영향을 미치나 그 방향성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모의 돌봄은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내적 자원이 되는 강인성을 높이는 반면, 과도한 보호는 자녀로 하여금 의존심을 불러일으키고 독립심을 저해하여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인 강인성을 형성하는데 해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인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에도 강인성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인성이 완전 매개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이 높았다

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강인성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반면 부모 과보호가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강인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이 따뜻한 관심과 격려,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으로 지각된다면 자녀들의 성격형성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와 통제가 지나쳐 조건적인 애정이나 강압적인 태도로 지각된다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 보호가 필수적이라 해도 지속적으로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음은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과보호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정한 정서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부모 자신이 불안이 높고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 없음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Holmbeck et al., 2002). 적은 자녀수와 부모의 과도한 보호는 자녀로 하여금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고 단체 생활 부적응이나 생산성 저하와 같은 역기능을 보일 수 있음이 중국의 ‘소화제’와 관련된 보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녀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관심과 지원은 선의로 제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수혜자인 자녀 입장에서 과도한 것으로 지각한다면 오히려 행복감과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유불급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스스로가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자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감으로써, 자녀의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충분한 안정적 돌봄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요령 등에 관한 올바른 부모교육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인성이 성격변인으로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강인성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적 지원, 정신건강 등과 관련하여 강인성에 관한 선행연구(이민규, 2000; 이철호, 이민규, 2006; 정은선, 2007)가 있기는 했으나 지각된 부모 자녀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이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인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을 설명하는 예언력이 매우 크며 부모의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이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돌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자녀는 강인성을 형성하기 쉽고, 강인성은 다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우울감을 적게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인성이 부모의 돌봄과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결과는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내적 자원인 강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입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부모 양육태도 자체가 정서적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에 임하며, 변화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도전하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강인성은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1차 집단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형성될 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지원과 스스로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실제적인

문제 해결 등의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김후영, 2006).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나 상담 등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내적 자원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부모 양육태도가 현재 입장에서 지각된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강인성은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자신 스스로 조정하고 변화 가능한 개인차 변인이다. 상담 장면도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다룰 때 지각된 과거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내담자가 가진 자원으로서 강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와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심리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당면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변화를 위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부모 자녀와 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상담자는 내담자를 공감하고 격려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간다. 부모의 돌봄이 개인의 성격 형성과 정서에 영향을 미쳤듯이 상담자와 충분한 지지와 격려가 바탕이 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상담 성공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강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실제 부모로부터 제공된 돌봄과 과보호를 다각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현재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을 살펴본 것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Bolger 등(2000)에 따르면, 선의(善意)로 제공하는 배우자의

지원도 수혜자(상대 배우자)가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해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 그러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수혜자에게 지원을 주었으나, 수혜자가 알지 못하게 제공하는 지원(invisible support)이 이루어져야(Bolger et al., 2000) 한다는 점을 참조하면, 부모의 양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의 상호 관계를 함께 고려하고, 회상식 자기 보고뿐만 아니라 관찰, 종단적 연구 방식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 Kindlon(2006/2007)은 학업,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를 ‘알파 걸’¹⁾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을 이해하는데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버지들은 딸과 친밀한 관계를 이룩함으

1) 알파 걸(alpha girl, ‘a’ girl): 미국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교수 덴 킨들런의 2006년 출간된 [새로운 여자의 탄생-알파 걸(Alpha girl: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에서 처음 정의된 용어. 알파(α)란 그리스어의 첫째 자모로 학업,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를 뜻함.

로써 딸들에게 남성적 방식을 전달하게 되고, 이 전통적인 남성적 방식은 많은 알파 걸들 심리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부모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으로만 제한하여 이루어졌다. 아울러 한 대학교이 학생으로만 구성되었으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들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집단이며 특별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만약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도움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는 부모나 주변 사람의 보호는 필수적이며 때로는 과도한 보호조차 당연하거나 매우 유용한 도움으로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돌봄과 과보호라는 차원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대상과 연령대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일반적인 대상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도 보다 광범위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옥 (2005). 국내 강인성 효과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7(5), 783-792.

김영우 (1998). 사회적 지원망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일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후영 (2006). 심리적 강인성 발달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1.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장정신체검사용 정신과 집단선별검사 개발을 위한 연구(5). *신경정신의학*, 32(6), 896-903.

오욱진 (1999).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가효, 박선주 (2004).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9(1), 101-116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성격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규 (2000). 실직자의 정신건강과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3), 546-561.

이은희 (1999).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우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 (2005). 사회적 지원이 개인 안녕과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철호, 이민규(2006).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7), 77-90.
-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7(2), 167-178.
- 인터넷 뉴스스 (2007. 9. 15). 중국에서 부는 사교육 열풍. [On-line]. <http://www.naver.com> 통합검색/뉴스/검색어: 소황제.
- 인터넷 조선 (2003. 8. 15). 전문가 진단-외동아 이 문제 바로 봐야: 두뇌 우수하지만 또래들과 못 어울려. [On-line]. <http://www.naver.com> 통합검색/뉴스/검색어: 소황제.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연구 I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1(2), 66-76.
-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에서의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7(1), 34-43.
- 정승환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생의 우울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선 (2007). 육군 신병 교육 훈련 상황에서 심리적 강인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처방식과 성취목표를 매개변인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91-211.
- 조현영 (1999). 전화상담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 지속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 주관적 안녕감, 강인성, 조력신념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남, 최외선 (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인가정학회지*, 33(3), 31-42.
- Allred, K. D., & Smith, T. W. (1989). The hardy personality: Cognitiv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evaluative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57-266
- Anderson, B. J., & Coyne, J. C. (1991). "Miscarried helping" in the famil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s. In J. H. Johnson & S. B. Johnson(Eds.), *Advances in child health psychology*(pp. 167-177).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 Anderson, B. J., & Coyne, J. C. (1993). Family context and compliance behavior in chronically ill children. In N. A. Krasnegor, L. Epstein, S. B. Johnson, & S. J. Yaffe(Eds.), *Developmental aspects of health compliance behavior* (pp.77-89). Hillsdale, NJ: Erlbaum.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 Bartone, P., Ursano, R. J., Wright, K. M., & Ingraham, L. H. (1989). The impact of a military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317-328.
- Bolger, N., & Amarel, D. (2007). Effects of social support visibility on adjustment to stress: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58-475.
- Bolger, N., Zuckerman, A., & Kessler, R. C. (2000). Invisible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953-961.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 Clay, R. (1997). Adults, peers need help coping with a child's disability. *The Monitor: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8, 35.
- Dormann, C., & Zapf, D. (1999). Social support, social stressors at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Testing for main and moderating effects with structural equation in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874-884.
- Drory, Y., & Florian, V. (1991). Long-term psychosocial adjustment to coronary artery disease.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2, 326-331.
- Enns, M. W., Cox, B. J., & Clara, I. (2002). Parental bonding and adult psychopathology: results from the US national comorbidity survey. *Psychological Medicine*, 32, 997-1008.
- Florian, M., Mikulincer, M. & Taubman, O. (1995). Does hardiness contribute to mental health during a stressful real life situation? The roles of appraisal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1-11.
- Holmbeck, G. N., Johnson, S. Z., Wills, K. E., McKernon, W., Rose, B., Erklin, S., & Kemper, T. (2002). Observed an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The mediational role of 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96-110.
- Hudson, J. L., & Rapee, R. M.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nxiety disorders: An observation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1411-1427.
- Hull, J. G., Van Treuren, R. R., & Virnelli, S. (1987). Hardiness an health: A critique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18-530.
- Kenny, D. A. (2001). Mediation. Retrieved from the web May 14, 2002. <http://davidakenny.net/cm/mediate.htm>
- Kindlon, D. (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알파걸(최정숙 역). 서울: 미래의 창.(원전은 *Alpha girl: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2006)에 출판).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Kobasa, S. C. (1982). Commitment and coping in stress resistance among lawy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07-717.
- Kobasa, S. C., Maddi, S. R., & Courington, S. (1981). Personality and constitution as mediators in the stress-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68-378.
- Kob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7.
- Lawton, M.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6-89.
- Maddi, S. R., & Kobasa, S. C. (1984). *The hardy executive: Health under stress*. Homewood, IL:

- Dow Jones-Irwin.
- Martin, G., & Waite, S. (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89, 246-254.
- Martire, L. M., Stephens, M. A. P., Druley, J., & Wojno, W. C. (2002). Negative reactions to received spousal care: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miscarried support. *Health Psychology*, 21(2), 167-176.
- Mayseless, O., & Hai, I. (1998). Leaving home transition in Israel: Change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military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 589-609.
- Mikulincer, M. & Florian, V. (1995). Appraisal of and coping with real-life situation: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4), 406-414.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817-826.
- Mills, R. S. L., & Rubin, K. H. (1998). Are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ournal of Behavior Sciences*, 30, 132-136.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1.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iar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7.
- Overbeek, G., Have, M., Vollebergh, W., & Graaf, R. (2007). Parental lack of care and overprotection: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DSM-III-R disord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87-93.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Grune and stratton.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eters, M. C. W., Buunk, B. P., & Schaufeli, W. B. (1995). Social interactions and feelings of inferiority among correctional officers: A daily event-recording approa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5, 1025-1089.
-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 (1996).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pp.3-23). NY:Plenum.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Sargent, J. (1983). The sick child: Family complication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4, 50-56.
- Taylor, C. T., & Alden, L. E. (2006). Parental overprotec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Behavior Therapy*. 37, 14-24.
- Thomasgard, M. (1998).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vulnerability overprotection, and paren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ild Psychiatry*

- and Human Development*, 28(4), 223-240.
- Thomasgard, M. & Metz, W. P. (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4, 67-80.
- Veit, C. T., & Weir, J. E. (1983).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30-742.

원 고 접 수 일 : 2008. 8. 13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15

게 재 결 정 일 : 2009. 2. 9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s Mediators

Eun Sun, Jung

Han Ik, Ch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parental care and parental overprotection to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if students' hardiness would mediate the relations of parental care and parental overprotection to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among 241 undergraduate student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car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and lower depression. Second, a series of mediat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relations of parental care to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were mediated by students' hardiness. Implication include future parental education should focus on parental care and that the desirable attitude of counselors in effective helping involves enhancing hardiness.

Key words : *parental care, parental overprotection, hardiness, subjective well-being, depression.*